

## 교회 소식

- 담임목사 동정  
– 6월 28-7월 2일 (월-금) St. Louis, MO 에서 열리는 PCA 총회(General Assembly)에 다녀옵니다.

## 예배 안내

- **주일예배:** 1:30pm, YouTube
- **English Service:** 12pm, Zoom
- **새벽기도 (월-토):** 6pm, YouTube
- **유치부 · 유년부 주일학교:** 10am, Zoom
- **중 · 고등부 (Youth Group) 예배:** 12pm, Zoom
- 주일예배처소: 448 Bedford Rd, Armonk, NY 10504
-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http://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817 3134 4066 (Sunday School)  
939 020 5125 (EM/Youth)

## 성경 공부 및 모임

- **성경공부:** TBA
- **중 · 고등부 성경공부:** 금요일, 8pm, Zoom
- **구역모임:** TBA

## 섬기는 분들

- **담임목사:** 이민영
-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 기도

-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범상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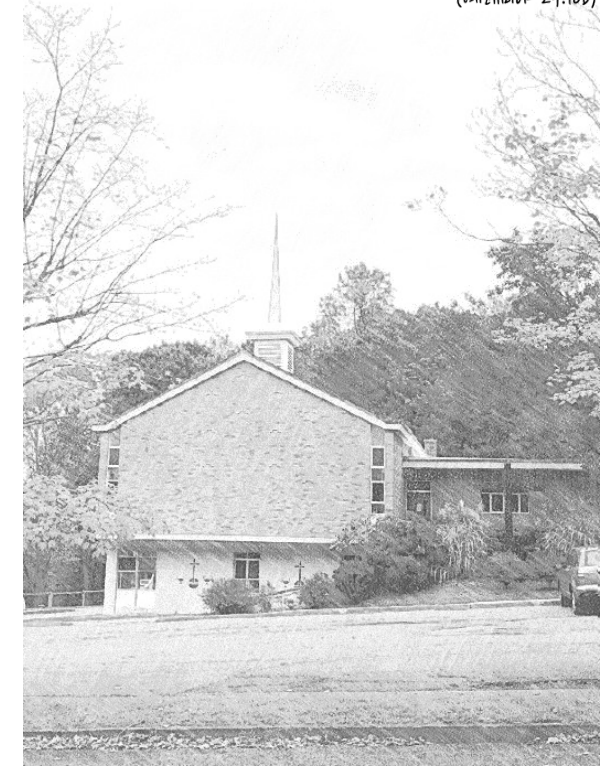
- 대표기도: 권혜순 집사 (시 139)
- 친교: TBA

제21권 25호

2021년 6월 20일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에베소서 29:10b)



## 교회 연락처

주소: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전화번호: (914) 874-3606  
Email: [nyskch@gmail.com](mailto:nyskch@gmail.com)  
Homepage: [www.nysekwang.org](http://www.nysekwang.org)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http://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rder of English Service

<12p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Together

Call to Worship -----Together

Worship & Praise -----Together

Confessional Prayer-----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Offering Prayer----- Leader

Word of God---- **1 Kings 18:21,24,38-39** ----- Leader

Sermon----- “**What Do You Say?**” -----Pastor Kim

Reflection Prayer-----Together

Benediction -----Pastor Kim



Memo

주일 예배 순서

<오후 1시 30분>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위한 묵상 ----- 인도자  
Worship Meditation

\*예배로의 초대 --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함께  
Call to Worship

\*신앙고백-----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9(53)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 다함께  
Hymn                      Heaven is Full of Your Glory

대표기도 ----- 시편 9:9-20 ----- 강승연 집사  
Prayer                      Psalm 9:9-20

봉헌-----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함께  
Offering

성경봉독 ----- **마태복음 22:23-33** ----- 인도자  
Word of God                      Mt. 22:23-33

설교-----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 ----- 이민영 목사  
Sermon                      Are You Alive to God?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

\*찬송----- 171 “하나님의 독생자” ----- 다함께  
Hymn                      God sent His Son

\*축도-----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설교 말씀

누구의 것이냐?

마태복음 22:15-22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은 세금에 대해 정 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미워하는 점에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칭찬과 질문은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되었습니다. 경배할 마음이 없는데 진짜 예배 받으실 분이시고,

따를 마음이 없는데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질문은 이들과 같지 않고, 마땅한 겸손과 경외로 예배하고 순종으로 지켜야 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가르침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들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늘에 본향이 있고 세상에서는 나그네이지만 세상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특히 위의 권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롬 13:1-2).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이며,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벌하도록 권세자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의 혜택을 얻으려, 또는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나그네이지만, 세상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대사, 대표, 형상이므로, 세상의 기준보다 더 정직하고 책임있게, 선을 행하고 의롭고 너그럽고 사랑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욕을 먹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이름으로 부름받아 온전한 형상을 회복해 갑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결코 가이사에게 주지 마십시오. 소망과 사랑과 충성은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보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고, 혹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우상과 덧이 될 뿐입니다.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신과 의와 애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 세상에서의 영달을 위해 한다면 가이사에게 상을 받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마 6:1, 2, 5, 16).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렇게 되는 날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시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전 15:49) 영광의 그 날을 소망합시다. 우리는 독생자의 피로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코 세상에 주지 마십시오.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뺏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지키실 것입니다.